

종교교육학연구 제17권. pp.223~24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12

조선시대 가정교육과 문자도

河 秀 京

(전주대학교)

《요약》

이 논문은 조선시대의 가정교육과 윤리 문자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글이다. 윤리 문자도의 상징과 기능은 조선시대 가정에서 이루어진 윤리교육을 목표로 한다. 윤리문자는 효(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여덟 글자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와 이웃이 화목하며,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믿음을 존중하고 예의바르며, 언제나 검약하며 자신이나 남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윤리 지침이다. 윤리 문자도의 형태는 일상 생활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를 상징하는 문자 여덟 글자와 집안장식의 미술이 결합된 표현양식이다. 대부분 8폭의 병풍으로 되어있다. 윤리문자 8자가 한 글자씩 각각 한 폭의 화면을 차지한다. 각 화면의 구조는 한자(漢字)의 서체와 상징물체의 그림이 결합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형상들은 글자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물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일정한 기본 틀이 있다. 윤리 문자는 각기 상징하는 바가 다르고 또한 그 뜻에 따라 상징물도 다르다. 예를 들면 효(孝)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고 상징물은 잉어, 죽순, 부채, 굴, 거문고 등을 그린다. 19세기 이후 20세기에 제작된 문자도는 문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상이 많고 장식성이 증가된 그림이 다수 있다. 최초로 형성된 윤리문자의 교육적 목적이 약해지고 집안의 장식적 실용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핵심 주제어: 가정교육, 윤리교육, 문자도, 병풍, 상징물

I. 연구의 성격

조선시대 가정교육은 유교전통을 중시하여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윤리를 유교의 《소학》의 윤리실천에 두었다. 소학적 윤리

실천은 유교 사회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교육이었기 때문이다. 사대부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소학의 윤리교육이 일반 가정교육에 정착한 것은 조선시대 유교이념의 확립과 함께 《소학》이 널리 보급되면서 사대부 중심의 유교교육이 차츰 일반가정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부터 일반 가정에서도 유학 사상을 기반으로 기초적인 도덕교육을 하게 되었으며 교육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도리와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행동규범을 가르쳤다.

우리 미술에는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윤리관을 시각적으로 풀이한 병풍그림이 있다. 주로 양반 집에서 사용한 것으로 그림의 내용은 유교적 윤리관과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사상이 반영된 효(孝)·제(悌)·충(忠)·신(臣)·예(禮)·의(義)·염(廉)·치(恥) 등 여덟 글자를 회화(畵)하여 병풍으로 꾸민 그림이다. 이것을 문자도(文字圖)·효제도(孝悌圖)·팔자도(八字圖)라고도 하고 민간에서는 ‘꽃그림’이라고도 한다. 문자도의 표현 방식은 종이나 천으로 만든 화면에 유교의 윤리를 담은 뜻글자를 서체로 쓰고 글자의 의미와 관련된 요순시대의 고사나 성현들의 올바른 언행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들을 살펴보면 가정교육에서 중시하는 실천적 윤리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풀이하여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문자도는 가정에서 교화용으로 쓰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예의범절의 실천을 가정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우리 전통사회에서 문자도는 교훈적인 내용을 조형적인 방식으로 시각화시킨 것으로 일종의 윤리실천의 지침서와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유교사회에 있어서의 가정교육과 문자도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논의한다면 실용미술이 어떻게 가정교육에 기여하였는가를 알아 볼 수 있고, 지나간 전통사회에서 통용되었던 그림이라 할지라도 현대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그 의미를 새겨봄으로서 문자도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실용미술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찾는 데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조선시대 가정교육에 있어서 문자도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쓴 글이다. 문자도의 형성과 사상적 배경은 문헌과 선행 연구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현존하는 문자도의 실증적 화면자료를 대상으로 문자도와 인격교육의 상호작용에 관한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문자도의 윤리 교육적 가치와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그 표현의 특수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일반적인 내용만 서술할 것이다. 우리의 문자도에는 유교적인 내용의 문자도 뿐 아니라 불교에서의 문자도, 수호적 성격의 문자도, 길상적 내용의 문자도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효·제·충·신·예·의·염·치 등 여덟 글자를 내용으로 한 유교적 문자도를 대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이 글의 전개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교적 내용의 문자도를 지칭할 때 여

러 문자도와 구별하는 '윤리문자도', '윤리적 문자도', '유교적 문자도' 등에서 수식어를 생략하고 '문자도'로 통일하여 표기할 것이다.

Ⅱ. 전통 주생활문화와 문자도의 형성

1. 전통 주생활문화의 특성

우리의 문자도는 전통가옥의 생활문화에서 형성된 미술이며 유교의 시각교육용 자료이다. 문자도가 가정교육의 장소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형성 배경을 고찰하려면 먼저 전통사회의 집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생활문화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가옥은 유교적인 도(道)인 효(孝)·예(禮)를 실현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전통 가옥의 구조·생활 양식·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전통 주생활 문화의 특징을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간의 다목적성과 창호의 반폐쇄성

조선시대 양반은 신분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보장을 받고 있으나 경제적 기반이 없어 실제로는 서민주택과 같은 주택에 기거하기도 하였으며, 중인계급은 경제적 조건이 조성되었다해도 신분에 따른 가사규제의 제약을 받아 양반들이 기거하는 상류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었다. 조선후기 가장 기본적인 한옥의 구조는 안방·윗방·부엌·두 칸의 툇마루로 구성된 외통집인데 부유한 양반 집에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쓸모에 따라 칸을 더 넓게도 잡았고 아래채, 사랑채, 별채 등 가옥의 수를 증가시켜 집의 규모를 넓히기도 하였다. 한옥은 온돌과 마루가 필수적이었고 우리의 기후 조건으로 구부러진 나무가 많은 건축재의 한계성으로 방의 규모는 작았다. 온돌방은 한랭을 막기 위해 통풍구를 작게 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벽면이 커진 소규모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¹⁾

대가족이 살아가는 조선시대의 집은 태어나서 죽은 후까지 인간의 광범위한 행위를 수용하는 곳으로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생산활동을 비롯하여 종교·교육·문화·사회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복합적 성격의 장소였다. 그러므로 남녀

1) 김영학, 《민화》, 서울: 대원사, 2000, 23쪽.

노소와 상하 위계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주거생활공간의 기능과 가족의 대소사와 사회활동의 연장으로서의 사회적 장소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옥의 공간을 효율적이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융통성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가옥의 공간 구성을 외적으로는 폐쇄성을 가지나 내적으로는 개방성을 갖도록 하였다. 담장과 행랑으로 둘러싸인 가옥은 외부로 높은 들창과 대문만 설치하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각 채와 방의 벽체는 대부분 창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요시 접어서 들쇠에 매달게 되었기 때문에 담장 안에서는 개방적이다. 창호의 반폐쇄적인 특성은 정원을 방의 연장소로서의 기능을 갖게 함으로서 방 창호를 통해 소리나 빛이 서로 통하는 개방성을 갖고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상하의 의견 교환장소 또는 내객의 접근 방향으로서 공동생활의 장소로 쓰였다. 또 환갑·혼인·상사 등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경우는 차일을 쳐서 연회장으로 이용하는 등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하였다. 안채의 대청은 모임이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작업장소나 물건의 보관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등 공간의 전용성이 두드러졌다.²⁾ 또한 병풍도 좁은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여하였다. 우리 선조는 여러 폭의 서화 병풍을 자유로이 이동하여 필요한 공간을 재구성하고 건축적의 효과를 피함으로서 전통가옥의 좁은 공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지혜가 있었다.

2) 좌식생활

우리의 전통 주거생활문화에서 생활 미술품의 형성에는 좌식생활의 특성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거생활이 좌식이나 입식이나에 따라 생활습관과 예절의 규범도 달라지고 그 속에서 사용하는 기물이나 미술품의 규모와 내용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고구려 벽화를 보면 당시의 상류사회의 생활장면이 나오는데 침대 생활 모습과 함께 입식생활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생활방식은 고려를 거쳐 조선조 말까지도 부분적으로나마 계속되어 왔다.³⁾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공간의 전용성이 가능한 온돌이 보급되면서 좌식생활이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온돌은 농사법의 개량으로 생산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인 17C 이후 보편화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⁴⁾

우리의 좌식생활의 문화는 좌고(座高)를 척도로 하여 나지막한 가구의 높이와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생활 장식이나 미술품의 규모와 구성,

2) 주영애, 조선조 상류주택 살림공간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3)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서울: 열화당, 126-134쪽.

4) 김홍식, 〈민가의 형성과 건축적 특성〉, 《궁실민가》, 중앙일보, 1984, 195쪽.

위치 배정하는 일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방안의 장벽이나 섯문에 그림을 그려 붙일 때도 그림의 크기와 위치 선정은 성인이 앉아 있을 때의 눈높이에 맞추어 좌식생활의 범주 내에서 결정되었다. 온돌의 방바닥은 난방이 잘되는 곳을 분별하여 아랫목에 주인이 벽장을 등지고 앉도록 보료를 깔고 그 위에 사방침을 놓았고 방의 윗목에는 손님이 앉기 위한 방석을 두는 것도 한식 좌식 문화생활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온돌방은 앉아서 절하는 인사예절과 반상을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책상반·원반·해주반·호족반·개다리소반 등의 다양한 상의 모양을 전수하게 된 것도 우리의 고유한 좌식생활 문화라 하겠다.

3) 남녀의 유별과 상하 위계질서

우리의 주생활문화는 남녀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가족의 서열과 상하의 신분상 공간사용의 위계질서가 있었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에서의 성별공간 분화는 안채는 여성전용 공간이고 사랑채는 남성전용 공간으로 분리하였다. 당시 지어진 상류주택의 평면을 살펴보면 안채와 사랑채가 병렬형의 평면으로 연결된 일체형과 T자형 평면으로 사랑채와 안채가 독립된 형이 있었는데 여성생활공간이었던 안채는 윗채에 안방·건넌방·대청·부엌·아래채에 광·곳간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안방과 가사공간인 부엌은 취사와 난방을 목적으로 연결되었고, 부엌에 이어 가장 근접한 곳에 곳간이나 광 등의 부수 공간을 배치하여 주로 가사의 주된 활동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사랑채는 주로 서재·사랑대청·사랑방·사랑마당 등으로 이루어져 가사공간이라면 주로 난방을 위한 땀감을 보관하기 위한 광과 함실같은 공간이 있을 뿐이다.

유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 중상류주택 건축시 남녀 생활규범으로 인한 공간의 분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안채공간의 대부분에서 그들의 소임으로 가사를 하도록 사랑채와 안채가 구성되게 하였고, 안채는 가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된 남녀의 공간은 각각 외부와의 연결성이 다르다. 여성의 공간인 안채는 외부와의 접촉빈도를 줄이도록 거리뿐만 아니라 거쳐야 하는 과정을 좀 더 많고 복잡하게 하여 그 연결성을 낮추었다.

조선시대 주생활문화는 위계질서를 유지하였으며 당시의 신분제도와 가정에서의 가부장제, 가족주기, 가족내 서열 등과 관련되어 있다. 신분의 위계에 의해 안채 사랑채와 같은 몸채에는 주인과 그 가족이, 그리고 행랑에는 노비들이 거쳐 하여 공간의 위계를 이루었다. 특히 노비는 술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뉘는데 술거노비는 행랑채에 기거하고 외거노비는 행랑채라 하더라도 청지기나 유모, 침모와

같은 사람은 몸채 가까운 중간행랑채(아래채)에 거주하여 동일가옥 내에서도 上의 공간 中の 공간 下의 공간으로서의 위계성을 이루었다.⁵⁾ 가족내의 서열과 장자우대에 의해 사랑방도 큰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의 격을 다르게 해놓음으로써 장자가 가부장으로서의 수업기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작은 사랑에 기거하도록 했다. 정읍 김씨가를 예로 보면 큰사랑은 두 칸 크기로 우물천장이 있고 동향인데 비해 작은 사랑방은 서향이며 천장도 나지막하게 紙天을 배운 방이다.⁶⁾ 크기에 따른 명칭으로 큰방 작은방이 있고, 위치에 따라서는 안방, 사랑방, 웃방, 가운데방, 아랫방, 아래웃방 등의 명칭이 있는 것은 같은 방이라 하더라도 생활하는 기거자의 위치에 따라 당시의 위계질서가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4) 병풍문화

우리나라는 병풍문화라 할 정도로 예부터 병풍을 많이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 대부분 8곡 내지 12곡으로 꾸며진 이동할 수 있는 서화병풍을 한집에서 여러 벌 갖고 있거나 빌려 썼는데, 병풍은 가족의 출생에서 상사까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소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출산·백일·돌·결혼·회갑·장례·제례 등 가족적 행사와 사회적 행사에 사용할 때 행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간구성기법으로 이용하였고, 특히 결혼 회갑 장례 등의 큰 행사 때에는 마당이나 대청마루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무대미술처럼 행사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하는데 사용하였다.

우리의 특수한 생활도구인 병풍은 생활의 장소와 행사 내용에 맞는 화제와 크기가 정해졌다. 건축구조의 역할과 장식적 분위기 조성의 복합적인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의 행사 내용을 수용하는데 합일점을 찾아 그 크기를 결정하였고 이용 규모에 따라 그림의 내용·크기·수가 달랐다.

병풍은 평소 방안에도 펼쳐 놓고 사용되었다. 그것은 외풍이 방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찬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방안의 분위기를 아늑하게 하는데 쓰였으며 항상 화려하고 따뜻한 봄날을 꿈꾸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 방마다 병풍의 그림이 달랐는데 안방은 주로 화조도·문자도·산수도 등을 썼고 사랑방에는 책거리·평생도 등을 세웠다. 우리 선조들은 한집안에 여러 개의 병풍이 필요했으므로 병풍을 장만하기 위해 일정기간 저축을 하는 등의 계획을 세워야 했을 것이다.

5) 주남철,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6.

6) 홍형옥, 《한국주거사》, 서울: 민음사, 1992, 157쪽.

5) 도배와 민화

한국인의 주거생활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배문화이다. 몇 년마다 외벽에는 칠을 하고 방안을 도배하여 집안의 분위기를 환하게 꾸미는 것은 한국인의 생활 습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배를 할 때는 방안 구석과 가구에 쌓인 묶은 먼지를 털어 내고 집안의 낡고 쓸모 없는 것들도 정리 정돈하게 되므로 도배는 지금도 한국인의 주거 생활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행사가 되고 있다.

도배는 원래 전통 한옥의 주거생활 문화에서 기본적인 행사였는데 도배를 하는 것은 방안을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추운 겨울의 외풍을 막는 역할도 했다. 우리나라는 일년의 삼분의 일이 한랭한 기후라서 전통사회에서 집을 지을 때는 북풍을 막는 집터를 정하여 따뜻한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는 남향집을 지었으며 창문도 작게 내었다. 출입문이나 창문은 창호지를 발라 방안에 채광을 주었다. 그러나 혹한의 긴 겨울은 방이 몹시 춥고 외풍이 많았다. 전통 한옥의 난방은 온돌에 의존하였으므로 겨울철에는 무엇보다 온돌의 보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요즈음은 건축재가 다양하여 건물의 벽을 틈새 없이 마감하지만 전통 한옥은 흙벽 가장자리에 틈새가 생기고 문틈이 있어 그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와 방안의 온기를 손실하기 때문이다. 이때 선조는 벽 틈을 없애고 방안 공기를 보온하기 위해 질긴 창호지나 두터운 한지를 써서 외풍을 차단하고 흙벽의 부스러기들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으며 동시에 실내의 분위기를 밝게 꾸며주는 도배문화의 지혜를 발휘했다.

도배는 대개 2~3년에 한번 하거나 길게는 5년 이상도 걸리기도 하는데 집안을 도배하여 낡은 것을 바꾸고 새롭게 꾸며주는 주생활의 습관은 도배문화로 발전하였다. 한옥 생활에서 반드시 일년마다 추석 전후에 행하여졌던 출입문 등의 창호지 바르기도 도배의 일종으로 방 안팎을 환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다. 도배할 때 방안 벽과 장문에 붙은 낡은 그림들은 새것으로 바꾸어 붙였다. 이 그림들은 문자도·문방도·화조도·십장생도·어해도(魚蟹圖)·작호도·수렵도·산수도 등으로 그림의 내용은 단순히 장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림마다 의미가 있는데 그 속에는 전통사회의 교육적 가르침과 현세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소망이 담겨 있다. 이것을 구분하면 첫째, 가정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둘째, 기복(祈福)이나 벽사(辟邪)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인간의 윤리를 가르치는 것, 자손이 번성하고 수복장수(壽福長壽)하기를 염원하는 것, 길상에 관계된 것, 토속신앙에서 오는 벽사의 의미를 담은 그림들을 통해 전통사회의 교육관, 가치관, 신앙관념을 알 수 있다. 현실적인 생활에서 만복이 있기를 기원하고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민화는 전통사회의 가정에서 필

수적인 그림이면서 동시에 생활의 장을 치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민화의 사용은 도배문화와 함께 발전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민화는 반드시 2장씩 쌍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외통집의 경우 안방과 건넌방의 안쪽 장벽에 2장씩 4장, 셋문 앞뒤쪽에 2장, 벽장문에 작은 민화 2장 등을 합쳐 8장이 필요하였다. 그밖에 아래채, 사랑채, 별채 등까지 확대하면 몇 년마다 전국에서 필요한 그림의 수요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민화는 그림의 의미가 달라도 모두 아름답고 화사하게 생활 공간을 장식했다. 다양한 화제의 민화 중에 색채가 화려한 화조화와 산수화가 다량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화조화와 산수화를 많이 사용했으리라 짐작이 간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제작된 민화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도배문화 속에서 민화가 크게 발전하고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⁷⁾ 민화의 확산은 방대한 민화의 수요에 대하여 적지 않은 공급자를 필요로 하였을 것이고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그림에 필요한 천이나 종이의 생산 기술의 발전과 상업의 발전이 뒤따랐을 것이다.

2. 가정교육의 내용과 유교적 전통

문자도의 내용은 효. 제. 충. 신. 예. 의. 엄. 치의 여덟 글자를 문자와 그림으로 꾸민 병풍그림이며 그 문자와 그림의 내용은 유교의 도덕적 인격 교육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조들이 실생활에서 문자도를 활용하여 집안의 장식과 자녀 교육의 시각자료로 삼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통 가정교육에서 도덕적인 인격형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전통 가정교육의 내용과 유교적 전통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성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1) 태교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가정교육은 집안마다 고유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체험적으로 전수되었으나 가정교육의 초기단계는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태교는 임신중 임신부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가 곧 태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의식 가운데 심신이 건강한 아기의 출생을 위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출산 때까지 부모가 될 부부가 수행해야할 교육적 노력을 말한다. 특히 임신 중 어머니의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태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속되어 온 것이다. 보다 훌륭한 자손을 출산하고자 하는 바람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본능이기

7) 김영학, 앞의 책, 27-29쪽.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태교를 매우 중요한 가정교육의 기초단계로 여겼다는 것은 《규합총서(閨閣叢書)》, 《태교신기(胎敎新記)》와 이이(李珥)의 《성학집요(聖學輯要)》, 송시열(宋詩烈)의 《계녀서(戒女書)》 등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1775년 당시의 선비와 부녀자,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할 예절과 수신(修身)에 관한 규범을 정리해 놓은 이덕무(李德懋)의 《사소절(士小節)》에도 임신부가 행동과 음식을 삼가지 않으면 자식이 일찍 죽거나 병들게 된다”고 하여 태교의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본격적인 태교연구서인 《태교신기》에는 자식의 기질의 병은 부모로부터 연유한다는 것을 태교의 이치로 밝히고 태교의 효험, 태교의 중요성, 태교의 방법, 태교 중에 경계해야 할 것과 태교는 장부(丈夫)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인에게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태교신기》 등 문헌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전통 태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을 속이거나 헐뜯거나 부당한 일 등 삼가야 할 행동, ② 옷을 너무 덥게 입지 말고 먹을 때는 적당히 먹으며 몸에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등 근신해야 할 일, ③ 바르지 않은 모양, 벌레 먹거나 썩은 것, 냄새나 색이 나쁜 것, 날 채소와 찬 음식을 피하고 어류와 육류와 채소 중에 먹어서는 안될 음식, ④ 귀인(貴人), 빛나고 아름다운 것, 성현이 훈계한 글, 관대(冠帶)·주옥(珠玉) 등 가까이 두고 보아야 할 것, ⑤ 광대, 난쟁이, 원숭이, 몸쓸 병이 있는 사람, 잡소리, 굶거리, 무지개, 벼락, 번개, 욕하는 소리 등의 보고 들어서는 안될 것과 이밖에 약물금기와 임신한 달별로 금기해야 할 음식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태교 내용에는 때로는 비과학적인 것도 있으나 훌륭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 임신부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정성스러워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고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임신부를 배려하는 생활태도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교는 임신 이전의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되는데 임신 이전에는 부모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임신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장차 한 아이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이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교육적 의미가 있다. 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부의 태교인데 해평윤씨가 지은 《규범(閨範)》에도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있기 때문에 그 용모와 성품이 어머니와 비슷한 것이며 이 때문에 성인(聖人)이 태교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도 민간에 전해오고 태교는 태교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열녀전』의 내용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이것은 태교의 전통이 오랜 것임을 말해준다. 이 기록에서 훌륭한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태교의 내용은 임신부가 잠자리에서 옆으

로 눕지 않아야 하며, 앉거나 설 때 바른 자리에 바르게 앉고 서며, 바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으며, 옮지 않은 것을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하고, 좋은 시나 이야기를 들어서 항상 바른 일을 하는 등 임신 중의 행동과 음식에 대한 상세한 금기사항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것은 임신한 어머니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가 태아의 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교육적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지금도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임신중의 태아는 모체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고 모체의 영양상태와 정신건강이 태아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현대에도 차츰 태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가정교육의 유교적 전통

가정교육은 태교로부터 시작하여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주로 가정에서 부모와 친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가정교육의 내용은 유교적인 가치관에 근거를 둔 덕목들로서 이미 그 내용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가정교육은 대가족 내에서 오륜(五倫)의 행동규범을 터득하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도덕적인 가치관과 인격 형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대가족제도의 전통 가정에서 성별·위계·연령이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다양한 욕구가 일어나 많은 갈등을 빚기 마련이다. 유교는 우선적으로 이 갈등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 질서로 무엇보다 예의범절의 실천을 가정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유교에서 예(禮)는 유교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의 객관적 기준이 된다. 유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도덕적 삶을 확립하려면 현실적인 의·식·주 등의 삶의 기본 조건들을 구비하고 인간사회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도덕적 본질을 인식하여 밝힌 뒤에 그것을 실천하여야 한다. 전자를 소학이라 하고 후자를 대학이라 하는데 소학의 과정은 육체적인 삶의 확립을 위하여 생활의 예절덕목과 예·악·사·어·서·수 등과 같은 육예(六藝)를 통하여 정서적인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대학의 과정은 도덕적 삶의 확립을 위하여 소학에서 배운 예절덕목들에 대하여 그 이치를 밝히는 도덕적 사고 교육이 그 주된 교육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유교에서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교육의 바탕이 되는 소학의 교육과정이다. 소학은 육체적인 삶과 그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예절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 일상의 생활 예절·관혼상제 등에 관한 모든 의식·절차, 사회의 모든 제도와 질서를 준수하는 행동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소학의 주된 내용이다. 그것은 오륜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집약

된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임금과 신하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형과 아우의 관계, 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 친구 관계 등 이 다섯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에서 지켜야할 행동원리를 오륜이라 하며 유학에서는 이것을 모든 예절의 근본 원리로 보았다.⁸⁾

공자의 교육관을 보면 교육은 인간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학교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교육을 할 수 있는 바탕을 가정교육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공자는 가정교육의 여섯 가지 철칙을 제시한바 있는데 첫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하고, 둘째로 남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도록 하고, 셋째로 침착성을 기르도록 유도하며, 넷째로 신의를 지키도록 유도하며, 다섯째로 두루두루 동료를 사랑하도록 유도하며, 여섯째로는 착한 벼를 사귀도록 유도해야한다고 하였다.

자녀의 본격적인 가정교육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하여 9세까지 아이의 교육은 관대하고 자애로우며 온화하고 공손하며 신중한 사람을 택하여 아이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비록 아이가 말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교육의 내용은 나이에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나 말할 때 바르게 하도록 바른 생활 습관을 가르치고 6세가 되면 숫자와 방위를 가르치며, 8세가 되면 집박을 출입하거나 자리에 앉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사양하는 것을 가르쳐 남을 배려하는 것을 일러주었다. 9세까지의 교육은 세상을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초기교육으로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여 말하는 법, 대답하는 법, 사양하는 법, 어른을 대하는 법, 옷 입는 법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습관을 바르게 익히는 교육이다. 10세가 되면 글을 가르치는데 밖에 있는 스승에게 보내거나 경우에 따라 집안에 스승을 모셔 가르쳤으니 이때부터 밖에 나가 수학하는 시기가 된다. 13세가 이후부터 음악·시·춤·활쏘기·말 타는 것을 가르쳐서 기본적인 예절덕목과 함께 정서적인 교육을 하였다.⁹⁾ 10세까지는 남녀가 같은 가정교육을 받았지만 10세 이후에는 남자는 밖에 나가 학교교육을 받았고 여자는 집에서 상냥한 언어와 유순한 용모를 지니는 법을 배웠으며 방적·양잠·제사·베짜기를 배웠으니 여자는 출가할 때까지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다.

8) 이기동, <유교와 인격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연구, 《종교교육연구》 제2권, 1996, 12-13쪽.

9) 이문주, <정보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의 심성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5권, 1998, 45-47쪽.

Ⅲ. 문자도와 유교적 인격교육

문자도의 내용을 결정짓는 것은 문자의 의미·고사의 내용에 달려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문자도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서 문자도가 가정의 윤리교육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자도와 도덕교과서

문자도의 8글자가 언제부터 확립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유학적 가치덕목을 중시하였던 조선사회에서 윤리덕목을 글씨로 써서 벽에 붙여두고 항시 규범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문자도의 내용은 효·제·충·신·예·의·염·치 등 여덟 글자를 기본으로 한다. 글자의 의미와 관계가 있는 고사나 설화 등의 내용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자획(字畵) 속에 그려 넣어 서체를 구성하는 문자도는 대개 병풍 그림으로 그려졌다. 이 병풍은 윤리교육의 보급과 민심을 순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된 유교적 교육자료라 할 수 있다. 실제 도덕교과서로서 세종 때 효행의 풍습을 널리 알리고자하는 취지에서 간행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서 글을 쓰고 매 편마다 그림을 넣어 사실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시각화한 형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중국 서적에서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 등 삼강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를 각각 35명씩 모두 105명을 뽑아 그 행적을 그림과 글로 칭송한 책이다. 이 책은 당시 국민교육을 위한 일련의 조선시대 윤리 교과서 중 제일 먼저 발간된 것으로 충·효·정의 삼강이 조선사회의 정신적 기반이었음을 말해준다. 그 후 이 책은 1481년(성종12)에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되었고 후대에 중간되어 도덕서로 활용되었다. 이 책의 취지를 본받아 간행된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와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등도 이야기와 그림이 있는 교화용 도서로서 윤리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강조하는 덕목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 편마다 그림을 곁들여 글과 그 의미를 형상화한 점은 문자도의 형식이 발생될 수 있는 문화기반이 된다. 《삼강행실도》의 그림은 안견(安堅)의 주도 아래 최경 등 당시의 유명한 화원이 참여했다고 하고 《오륜행실도》의 그림은 김홍도의 그림이라고 한다. 필자는 책의 본문 끝에 요약 정리해 놓은 한문으로 된 원문의 시구가 조선시대 윤리 및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문자도의 형식에서 윤리문자로 정리되었으리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삼강의 내용이 그림으로 널리 제시되었고, 중종 9년(1514년)에는 《속삼강행실도》¹⁰⁾가 간행되었다. 문자도의 내용에는 《속삼강행실

도》의 고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삼강행실도》의 간행 직후에 문자도의 형식이 성립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한다.¹¹⁾

문자도의 각 글자의 뜻에 해당되는 고사가 삼강행실도에서 발췌되어서 그려졌으며 그 동기는 문자도의 형식에 유교윤리를 의도적으로 내세워 집안의 일상적 공간에 항시 세워두는 교화의 목적에 있다. 그 형식은 유학적 가치덕목을 규범으로 삼았던 뜻글자와 그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도덕서적들의 방식을 종합·압축함으로서 윤리 문자와 뜻을 형상화한 문자도가 재창조된 것이 아닌가 한다. 《삼강행실도》 등의 교과서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도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보도록 그림을 그려 넣은 것처럼 문자도는 글자의 의미와 관계가 있는 고사 등의 내용을 자획(字畵) 속에 그려 넣어 서체(書體)를 구성하였다. 효·제·충·신·예·의·염·치를 각각 일목요연하게 상징화한 병풍그림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함께 기거하는 방에 두고 교화용으로 활용하기 쉬웠을 것이다. 이러한 문자도는 혁필화(革筆畵)라고 하는 서체 위주의 비백도(飛白圖)로 변용되기도 했다. 민간에서는 꽃글씨라고도 하는 이 그림들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러 민화와 함께 널리 유행하였다. 이것은 한자 문화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조형예술로서 한자의 의미와 조형성을 함께 드러내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림이다.

2. 문자도와 인격교육

문자도는 한민족의 윤리관을 압축시킨 여덟 글자를 한자의 조형성 위에 그림을 첨가하여 8폭 병풍으로 그린 것을 말한다. 윤리문자는 효·제·충·신·예·의·염·치 여덟 글자로 그 뜻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와 이웃이 화목하며,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믿음을 존중하고 예의바르며, 언제나 검약하며 자신이나 남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윤리 덕목이다. 문자도를 통한 인격교육의 전략은 생활공간에 병풍그림을 펼쳐 세워두어야 효력이 있다. 가족이 기거하는 방에 세워 둔 문자도 병풍은 처음 보는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 그림에 대한 시각적 집중력을 통해 문자의 설명, 고사의 내용이나 상징물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들은 연속적으로 병풍을 반복하여 보게된다. 이렇게 유교적 덕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항시 가족들이 유교적 가치관의 흔들림 없이 도덕적인 품성을 지니도록 훈련시키는데 있어

10) 삼강행실도의 속편 격이다. 중종 9년에 왕명으로 대제학 申用漑 등이 충신 6명, 효자 36명, 열녀 28명을 1책으로 엮었다.

11) 김호연, 《한국민화》, 서울: 경미문화사, 1980, 179쪽.

서 백 마디 말보다 효과적인 교육방식일 것이다.

문자도의 글자를 만드는 형상들은 글자의 뜻에 맞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상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정하게 도식하는 기본 틀이 있다. 8문자의 교육적 의미와 상징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孝'자의 상징물은 효에 관한 대표적인 고사(古事)에 나오는 잉어·죽순·부채·굴·거문고 등이 등장한다. 이 소재들은 효를 수행한 특정 인물과 그와 관련된 동식물이나 기물들이다. 효는 유교사상에서 핵심적인 도덕규범으로서 전통사회의 문화적·사회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가치덕목이다. 공자는 효사상을 유가의 중심사상으로 확립시켰는데 그에 의하면 효는 부모를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써 장례와 제사를 치르며 입신양명을 효의 중요요소로 한다.

悌'자는 서로 도우며 우애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형제간의 도리를 나타내는 덕목이다. 상징물은 형제 이웃 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할미새와 상채(常棣:산앵두나무)가 등장한다. 유학자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시경》에 연유한다. 《시경》소아(小雅) 상채편(常棣篇)의 시에서 산앵두나무와 할미새의 모습을 형제간의 우애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과 관련되어 산앵두나무와 할미새를 형제간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림의 화제로 삼은 것이다.¹²⁾

忠'자는 용과 잉어·새우·대합이 등장한다. 어떤 경우에는 中'자의 한 가운데 획을 대나무로

대신하고 새우를 구부려 乚'부분을 그리기도 한다. 충은 유교의 중요한 도덕규범으로서 자기 자신 및 특정대상에 대하여 전성을 다한다는 뜻을 정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온 정성을 기우려 각자의 위치에서 직분을 다하는 도리를 말한다.

〈그림 1〉 '孝'字 문자도,
68×27.2cm, 일본 개인장.

12) 허균, 《뜻으로 풀어본 우리의 옛그림》, 서울: 대한교과서(주), 1997, 75-276쪽.

信'자는 새가 편지를 물고 등장한다. 신'은 유교의 중요한 덕목으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올바른 말·규칙·언약 등을 뜻한다. 신'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신의는 성실인데 사람과 말의 회의자(會意字)이다'라고 하여 주로 인간의 언어적 약속이 거짓없이 실현되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신의가 있어야 인간의 모든 사회적 관계와 삶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신의는 의리에 맞는 것이라야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듯이 신의는 도덕적 정당성을 전제로 한 사회적 덕목이다.

禮'자의 상징물은 예에 관하여 강론하고 있는 공자의 모습이나 책을 등에 진 거북이가 등장한다. 예는 유교문화의 전통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근거하는 사회적 질서의 규범, 행동양식의 절차, 유교적 제사의례의 구성과 절차를 의미한다. 공자는 '인 의 실천방법으로서 예법을 말했는데 여기에서 예는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이며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義'자의 상징물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桃園)에서 결의하는 장면, 복숭아꽃이 있고, 두 마리의 새가 등장하기도 한다. 의는 맹자에 의해 부각된 사상으로 인간의 본래 모습인 인의 실천방안이었다. 맹자는 인간의 상하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가 모두 의이며 대표적인 것으로 군신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군신유의라 하여 의로 설명하였다.

廉'자는 청렴하고 검소하며 곧고 바름을 말한다. 또한 받을 때와 받지 않아야 할 때를 가려서 처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염'자 그림에는 봉황새나 게가 나오는데 사슴이 같이 등장하기도 한다. 봉황은 살아 있는 벌레나 풀을 먹지 않으며,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대나무 열매만 먹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조 따위는 먹지 않는다는 상상의 새이다. 또 게는 전진후퇴를 반복하면서 먹이를 찾는 습성을 도연명의 출처지리(出處之理)의 도리에 조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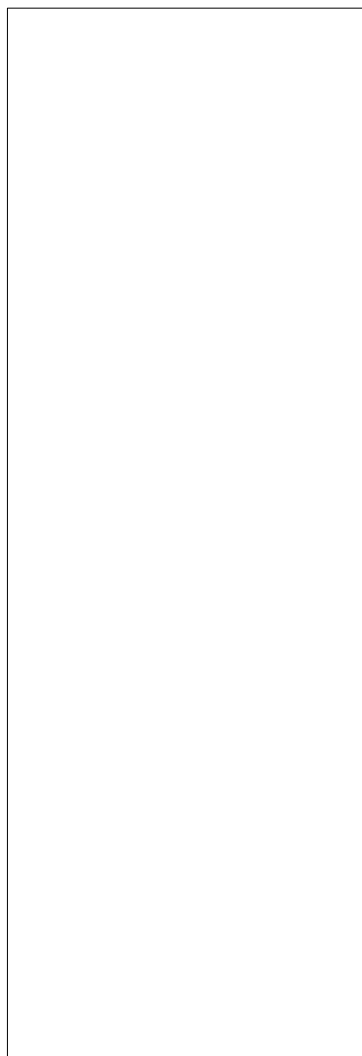


그림 2> '梯'字 문자도,
98×53cm, 홍익대학교 박물관장.

恥'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치격(恥格)을 말한다. 나라가 망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은둔생활로 여생을 보낸 백이(伯夷), 숙제(叔齊)의 산중생활을 중심으로 한 소재들이 그림으로 그려진다.

문자도의 글자를 만드는 형상들은 그 뜻에 합당한 상징적 고사(故事)를 나타내는 물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일정하게 도식하는 기본 틀이 있다. 문자의 덕목에 관련된 일화나 고사, 혹은 이와 관련되어 상징성이 부여된 기물이나 동식물이 글자 획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여백에 곁들여 그려진다. 이 상징물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孝'자는 효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고사에 나오는 잉어, 죽순, 부채, 굴, 거문고 등이 상징물로 등장한다. 이 소재들은 효를 수행한 특정 인물과 그와 관련된 동식물이나 기물들이다. 잉어는 진(晉)나라 임기인(臨沂人) 왕상(王祥)의 효행과 관련된 소재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계모가 엄동설한에 일부러 산 물고기를 원할 때 왕상이 강에 가서 얼음을 깨니 쌍잉어가 뛰어 나왔다하고 이를 잡아다가 계모에게 드렸다는 이야기와 연관되어 잉어는 효행을 상징한다. 죽순은 삼국(三國) 때 강하인(江夏人) 맹종(孟宗)의 효행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한 겨울에 늙은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므로 대나무 밭으로 달려가 애원하고 눈물을 흘리니 별안간 죽순이 솟아나서 어머니께 드렸다는 고사의 효행을 상징한다. 부채는 한(漢)나라 장제(章帝) 때 황향(黃香)의 효행과 관련된 소재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가 누워 계실 때 여름에는 부채질을 하고 겨울에는 자신이 체온으로 부모를 따뜻하게 정성껏 부모를 봉양하였다는 이야기의 효행을 상징한다. 굴은 한나라 헌제(獻帝) 때 육적(陸績)의 효행과 관련된 소재이다. 그가 육 세 때 원술(袁術)이라는 사람이 굴을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어머니께 갖다드리려고 가슴에 품었다는 이야기에서 굴은 효행을 상징한다. 자로의 백리부미(百里負米)는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가난하여 늙은 어머니를 위해 백 리 먼길에서 쌀을 지고 왔다는 이야기에서 효행을 상징한다.

悌'자는 형제 이웃 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척령이라고 하는 할미새와 상채라고 하는 산앵두나무가 상징물로 등장한다. 悌'자의 심방변의 두 점을 대신하여 두 마리의 할미새가 입을 서로 마주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산앵두나무는 제(第)자의 윗 부분에 있거나 글자 획 속에 들어가기도 한다.

患'자는 용과 잉어, 새우나 대합이 등장한다. 어떤 경우에는 대나무나 거북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용과 잉어는 《후한서》 〈이웅전〉에 나오는 魚變成龍 설화와 관련되어 벼슬에 올라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상징한다. 대합과 새우는 화제의 하합상하 내용과 같이 화합의 의미를 갖고 충절과 관련된 굳은 지조와 최상의 지위를 상징하고 있다. 지조는 대합과 새우가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

며 최상은 이들이 가진 껍데기 甲'을 첫째라는 의미의 갑'과 동일 음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가 전환된 것이다.

信'자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할 도리, 올바른 말, 규칙, 언약 등을 뜻하는 새가 편지를 물고 등장하는데 이 새는 서왕모(西王母) 설화에 나오는 청조(靑鳥)나 화제에 연관된 흰기러기이다. 서왕모 설화에서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상상의 새인 청조가 궁전에 날아와 서왕모가 온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전'자 그림의 청조가 물고 있는 편지는 서왕모가 온다는 언약과 믿음을 상징한다.

禮'자는 예에 관하여 강론하고 있는 공자의 모습이나 예'자의 示변의 첫 번째 획에 책을 등에 진 거북이가 등장한다. 《하도낙서(河圖落書)》 고사와 관련이 있다.

義'자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桃園)에서 결의하는 장면이나 복숭아꽃으로 도원의 결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의'자의 첫째 둘째 획에 마주 보는 두 마리의 새가 등장하기도 한다. 고사(故事)와의 관계가 멀더라도 의로움은 상호화합이 이루어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의'자의 넓은 획 속에 도원의 장면이 그려진 것도 있다.

廉'자는 봉황새나 게가 단독으로 등장하거나 사슴이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봉황은 오색 빛에 오움을 낸다는 상상의 새인데 닭 머리에 뱀의 목, 제비의 턱에 거북이 등, 물고기 꼬리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성품이 벌레나 풀을 먹지 않고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여 청렴과 절제를 상징한다. 게의 등장과 함께 간혹 연계한천 전진후퇴 울림극석 울리송국(廉溪寒川 前進後退 鬱林戟石 栗里松菊)'라는 화제가 있는데 게의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러서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의 행동 습성에 관계지어 엄을 상징한다. 堯임금 때 속세를 떠나 산 속에 은거한 소부와 허유의 모습이 표현되기도 한다.

恥'자는 백이 숙제의 모습이나 달, 매화나무가 등장한다. 어떤 경우는 달 속에서 방아찡는 토끼도 나타난다.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알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 죽었다하여 그들의 무덤과 위패도 등장하여 恥格을

〈그림 3〉 '忠'字 문자도,
63×35cm, 부산 개인장.

상징한다.

이와 같이 윤리 문자는 각기 상징하는 바가 다르고 또한 상징물도 교육적 의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문자도가 동일 문자의 뜻을 화제의 중심으로 삼더라도 화면에 등장하는 상징물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고 작업 의도에 따라 상징물의 가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조선시대 가정에 비치하고 가정교육에 활용한 문자도의 윤리의 내용은 단순히 조선사회의 유교적 덕성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통시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조선사회의 가정교육의 내용과 문자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듯이 가정교육의 내용은 유교적 덕성교육을 함양시키는 실천적 행동규범임을 알 수 있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한 것임을 주장하여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라고 하였다. 그는 인성을 고귀하고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시적으로 선한 인간성을 상실하였다하더라도 다시 선한 본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도덕적 행동규범의 실천을 중시하였다. 현실적으로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구석 구석까지 엄격한 행동규범의 강령을 강제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것이나 선조들은 제한된 주거공간에서 위계와 남녀의 규범을 지키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평소에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 도덕적 덕목을 가르쳤다. 이러한 동기에서 고안된 윤리 문자도는 도덕교육의 지침서와 집안 장식 미술로서 복합적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문자를 틀로 하되 문자의 교육적 내용을 연상시키는 형상물을 이야기하듯 쉽게 풀어 그린 글씨 그림을 통해 인간을 순화할 수 있는 정서를 환기함으로서 도덕적 인간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각적 장치라 하겠다. 문자도를 가족이 기거하는 방에 세워둠으로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기대효과는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교육내용의 전달, 사물의 인지, 접근의 수월성, 반복 교육, 시각적 환기, 예술형식에 의한 심성의 교화를 들 수 있으며 동시에 건축물의 보조적 기능도 하였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문자의 명확한 뜻이 희석되고 그림이 강조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유교가 농경사회에서 유지되어온 문화로서 조선 후기 이후의 사회변동에 부응하기에 한계점이 있었으리라는 짐작이 간다.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일상의 예의범절은 크게 변화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전통적 윤리 규범이 한국인의 행동규범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범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도덕적 덕목이므로 어느 사회에서나 중시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한국사회를 지탱해온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문자도를 통해 조선사회 가정교육의 실천적 윤리규범의 일면을 이해하고 민속예술이 지닌 실용성과 교화적 기능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문식, 〈소학(小學)과 아동교육〉, 서울: 전통과 현대사, 《전통과 현대사》, 1998 여름호, 1998.
- 김성기, 〈다종교사회와 유교의 종교적 의미〉,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1999.
- 김영학, 《민화》, 서울: 대원사, 2000.
- 김철순, 《한국민화논고》, 서울: 예경, 1995.
- 김호연, 《한국민화》, 서울: 경미문화사, 1980.
- 김홍식, 〈민가의 형성과 건축적 특징〉, 《궁실민가》, 서울: 중앙일보, 1984.
- 박선규, 《도사상과 회화세계》, 서울: 숭례문, 1992.
-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서울: 열화당, 1983.
- 이기동, 〈유교와 인격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2권, 1996.
- 이문주, 〈정보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의 심성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회》 제5권, 1998.
- 유홍준, 《문자도》, 서울: 대원사, 1994.
- 윤열수, 《민화이야기》,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5.
- 趙子庸·李禹煥, 水尾比呂志, 《李朝의 民畵》, 동경: 講談社, 1985.
- 주남철,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6.
- 주영애, 〈조선조 상류주택 살림공간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최병철, 〈한국의 유교와 사회적 기능〉,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9권, 1999.
- 허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서울: 교보문고, 1994.
- 허균, 《우리의 옛그림》, 서울: 대한교과서(주), 1997.
- 홍형옥, 《한국주거사》, 서울: 민음사, 199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1991.

원고접수: 10월 20일 1차심사: 11월 5일 게재승인일: 11월 30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한국화 / 소속: 전주대학교 예체능영상학부 회화전공 교수
 - ② 관심영역: 민속미술
 - ③ 주요논저: 〈한국민화의 조형원리 찾기〉, 〈한국산신도에 나타난 상징성과 조형적 특성〉, 〈기원을 위한 무신도〉
 - ④ E-mail: hsk2398@jeonju.ac.kr
-

The home education and the Ethics Character Pictures in the Chosun Dynasty

Ha, Soo-Kyung,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home education and presentation style of Ethics Character Picture of the Chosun Dynasty. The symbol and function of Ethics Character Picture lies the education at home in ethical education. The eight ethics characters are : 'Hyo(Filial piety)', 'Je(Brotherliness)', 'Choong(Loyalty)', 'Shin(Faith)', 'Ye(Courtesy)', 'Eu(Justice)', 'Yeom(Honor)', and 'Chi(Shame)'. Living according to these ethical guiding principle means that one should tend one's parents with Filial piety, be friendly with neighbors, love one's nation and people, keep one's faith, be courteous and thrifty, and have a sense of honor. The form of Ethics Character Picture is the presentation pattern harmonizing house decorative art and the 8 characters symbolizing the ethics that people should follow in their daily life.

Ethics Character Picture are usually presented on an eight-folding screen. Each of the eight characters takes up one-fold. The frame of each screen is composed of a Chinese character and a picture of a symbolic object. Each picture shows the object which symbolizes the meaning of each character. Ethics characters and objects are unique, both representing different meanings. For example, the character 'Hyo' has the meaning of filial piety and is symbolized objects such as a carp, bamboo shoot, fan, orange, and a six-string Korean harp. The presentation pattern of ethics character shows four distinctive features. Among those character pictures produced in the 20th century, many include overly decorative features and images. This made it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original character. That's why the existing educational purpose of ethics character became weak and the practical purpose of house decoration was emphasized.

Key words: home education, ethical education, ethics character picture, folding screen, symbolized object.